2. Why Man?

2023.1.29.

●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오늘날 과학적 접근방법은 절대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사실(fact)이나 진리(truth)가 아니라 이론(theory)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론도 인간과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러나 창조론은 이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왜 과학적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을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을까?

창조론
목적(의도)
7일
절대주의
정신세계(영혼)

진화론
우연
오랜 세월
상대주의
물질세계(육체)

※ 코넬 대학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윌리엄 프로바인은 다윈주의가 옳다면 피할 수 없는 5가지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1) 신이 존재하는 증거는 없다. 2) 사후 생명은 없다. 3) 윤리의 절대적 토대는 없다. 4) 삶의 궁극적 의미는 없다. 5)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란 없다.

– 리 스트로벨, [창조설계의 비밀] 21쪽, 두란노

●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가?(1)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 계셨다면 그냥 그곳에 영원히 계시면 되지 않는가!
결국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범죄하고 인류의 고통의 역사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분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역사가 고통에 빠질 것도 아셨잖은가.
그렇다면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창조	▷	선악과	▷	타락	▷	추방	▷	역사

●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가?(2)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냥 장난감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감당키 어려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창조 (FORM)	▷	타락 (DEFORM)	▷	구원 (REFORM)

(창세기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한일서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복음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평안한 거 같다가도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길을 가다 보면 불안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바닥이 울렁거릴 정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불안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평지였는데 내일은 낭떠러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로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자듯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세상			▷	하나님
변화무쌍 상대적 불안	◁	인간		영원불변 절대적 평안

●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매우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순이라고 하기에는 또한 한 존재 안에서 잘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흙	▷	육체	▷	의식주	▷	재미
생기	▷	영혼	▷	예배	▷	의미